

전북도-뉴저지주 교류 재개 '맞손'

송하진 도지사, 美 자매결연지 첫 공식 방문

올리버 부지사와 공식 면담 교류협력 강화 제안 한스타일 전시관 운영 현지 교민들에 큰 호응 뉴저지주의회 '교류협력 결의문' 채택문 전달

국제외교의 지평을 넓혀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송하진 도지사는 26일 자매결연지역인 뉴저지주를 찾아 '윌라 올리버' 뉴저지주 부지사의 영접 속에 공식 면담을 가졌다.

올리버 부지사는 "자매결연지역인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방문을 크게 환영하며, 뉴저지주 거주 이주민 중 한인이 다섯 번째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더 뜻깊은 관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뉴저지주는 첨단 산업과 농업, 탁월한 교육수준을 갖춘 선진지역이고 전북도는 한국의 농업 1번지이자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자매결연관계인 兩 지방정부가 그 인연을 살려 앞으로 청소년이나 민간교류는 물론 문화, 산업, 경제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2020년이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만큼 내년에 뉴저지주지사가 전라북도 방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고 초청장을 전달했다. 도는 이를 계기로 전북을 제

대로 알려 상호 우호증진 관계로 발전시키면서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또 27일 포트리 더블트리바이 힐튼호텔에서 교류 선도사업으로 전북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소개할 수 있는 '한스타일 전시관' 개막식과 리셉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뉴저지주정부의 웨슬리 매튜(외무 겸직 경제개발 국장), 주의회 상원의원 홀리 세피시와 고든 존슨, 크리스 정 팰리세이즈파크 시장 등 관계자, 박효성 뉴욕총영사, 조운중 뉴욕한국문화원장, 박은림 뉴저지주한인회장, 정영중 호남향우회장,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 이학수 회장, 재미 한국학교 임원 및 미주한국일보 등 로컬 언론기자, 현지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뉴저지주의회 홀리 세피시 상원의원은 송하진 지사에게 지난 6월말 뉴저지주의회에서 채택 의결된 '전북도와의 교류협력 공동결의문'을 주의회 대표로 전달하며 전북도와 뉴저지주 간의 교류를 강화하는데 뜻을 함께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송 지사는 이에 대해 "양 지자체가 다시 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록 의회가 선제적으로 나서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화답했다.

한스타일 전시관은 전북의 전통공예와 생활문화방식을 '한 스타일'이라 칭하고 이와 관련한 전통 공예품 전시와 체험 등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전북형 공공외교사업의 일환으로 자매우호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전시관에서는 오랜 역사와 우수한 품질로 세계에 인정받는 남원 옷칠 공예품, 전주 닥종이 인형 공예품, 고창 자수 매듭 공예품, 진풍 한복 등 전북의 무형문화재와 장인의 작품이 전시됐고, 전북도를 대표하는 도립국악원의 공연무대가 펼쳐졌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 각 색선별로 장인의 지도하에 손수 만든 공예품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는 무료 체험행사는 한 달 전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첫 날 프로그램 참가신청이 매진되는 등 현지 주민들은 물론 교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현지교민은 "그동안 간헐적인 주요인사 방문, 공연이나 전시회는 있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공식방문과 문화행사를 개최해 현지 주민 및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최한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면서 이번 행사에 큰 호응을 보였다.

/김진성 기자

전북 드론산업 육성 지원조례 본회의 통과

박용근 도의원 대표발의, 도, 드론산업 육성 '박차'

전북도의회 박용근의원(장수군)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전라북도의회 365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전북도가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박용근 의원이 제정한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면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 등 도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방재·재난·구호 등의 소방업무, 비료 또는 농약 살포 등 우리 주위의 실생활과 연계된 다양한 곳에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이번 조례를 통해 국토정보공사의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하게 되었다.

/김진성 기자



日 전범기업에 5년간 투자 수익 '-'

평화당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공단 투자 현황 분석 결과 강제노동 배상 판결 거부 미쓰비시에도 228억원 투자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 배상 승소 판결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로 맞선 가운데 5년간 국민연금 5조 6600억원이 전범 기업에 투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투자 기업 84%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 기업 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투자 평가액은 5조6600억원이었다.

2014년 74개 종목 7600억원에서 2015년 77개 종목 9300억원, 2016년 71개 종목 1조1900억원, 2017년 75개 종목 1조5500억원까지 늘었던 투자 평가액은 지난해 75개 종목 1조2300억원을 기록했다. 투자 평가액은 전년보다 3200억원 줄었지만 2014년 대비 1.6배 증가했다.

전체 투자 평가액에서 일본 전범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4%, 2015년 1.3%, 2016년 1.4%, 2017년 1.4%에 비해 지난해에는 1.1%로 낮아졌다.

특히 10만명 이상 한국인을 강제 동원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미쓰비시 중공업(228억원) 등 미쓰비시 계열사에 875억원이 투자됐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게 김 의원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75개 전범기업 중 84%에 해당하는 63개 기업에서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30% 이상 손실을 본 기업이 12곳, 마이너스 30~20% 21곳, 20~10% 18곳, 10~0% 12곳 등이었다. 미쓰비시 계열사는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일본산 불매 운동이 날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75개 일본 전범 기업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강제노동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에도 국민연금공단은 228억원을 투자했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김조원(오른쪽 두번째부터)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지난 2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무직 인사 발표에 참석해 있다.

靑, 신임 수석 인사 단행

민정 김조원·일자리 황덕순·시민사회 김거성 등 조국, 내달 법무부장관 기용·정태호 등 총선 출마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후임으로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을 임명했다. 조 전 수석은 내달 법무부장관으로 기용될 예정이다.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는 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 다음으로 황덕순 현 일자리 기획비서관이, 이윤선 시민사회수석비서관 후임으로 김거성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대표이사가 각각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등 핵심 경제라인을 교체한 데 이어 35일 만에 수석급 인사를 단행했다. 내달 개각 전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고 총선 출마자들에게 길을 터주려는 성격이 강하다.

1957년 경남 진양 출신인 김 신임 수석은 비(非)검찰 출신 사정 관료다. 노 실장은 "김 신임 수석은 정통 감사 행정 전문가이고 대학 총장과 민간 기업 최고경영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고 추진 중인 여러가지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다"고 밝혔다.

황 신임 수석은 1965년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황 신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맡아온 '월년 멤버'다.

노 실장은 "황 신임 수석은 노동 시장의 양극화와 고용 문제를 오래 기간 연구해 온 전문가"라고 밝혔다.

김 신임 수석은 1959년 익산 출신으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노 실장은 "김 신임 수석은 1999년 초 시민 단체인 반부패 국민연대의 창립을 주도한 이래 부패 청산을 시민운동의 영역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월년 멤버'인 조국 전 수석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안고 내달 개각에서 법무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번에 청와대를 떠나게 될 정 전 수석과 이 전 수석은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정 전 수석은 서울 관악동에, 이 전 수석은 서울 양천동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뉴스스

전북선관위, 전북교총과 온라인 투표 활성화 협약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전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전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32대 연합회장 보궐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온라인투표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북선관위는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통해 제32대 전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보궐선거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향후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임원선거 및 정책결정 투표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운영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은 기존의 종이투표 방식과 달리 선거인은 누구나 PC,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투표를 할 수 있고, 개표결과를 신속·정확하게 알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기관·단체의 선거에 온라인투표서비스를 통한 공정한 선거·투표지원 등으로 사회 갈등 해소 및 사회 전반에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성숙한 민주시민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제9회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

일시 | 2019년 8월 3일(토) 오후 2시
장소 | 중부비전센터

주 최 |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공동주관 |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매일신문사
JJC 전북지방자치TV
후 원 | 동아보건대학마술학과, 전주시
문의전화 | 전주매일신문 업무국 063) 288-9700